광주·전남 스타 2008 영광을 위하여

사격 국가대표…전남여고 김 찬 미

올림픽 금 '정조준'

'2008 베이징 올림픽 금 총성을 울린다'

여고생 총잡이 김찬미(18·전남여고 3·사진)의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조준이 시작됐다.

김찬미는 지난해 12월 12일 쿠웨이트에서 끝난 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501.1점을 쏴 세계기록 보유자 두리(503.7점·중국) 다음으로 은메달을 따내면서 올림픽 쿼터를 차지했다.

지난 9월 태극마크를 단 뒤 첫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주눅들지 않고 결선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 베이징 올림픽에서 당당히 세계적인 선수들과 금메달 각축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2007년 사격계가 발굴한 '보물'로 여겨지는 김찬미는 2006년 공기소총 전체 랭킹 3위(여고생 1위)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후 지난해 9월에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 3차 선발전, 경찰청장기, 전국체전 등 4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차세대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다.

2007 亞 선수권대회서 올림픽 티켓 확보

작년 전국대회 4개 휩쓴 '차세대 기대주'

여자 공기소총은 한국 사격의 전통적 강세 종목. 1992년 바르셀로나대회 때 여갑순(대구은행)이 올림픽 첫 금메달을 땄고, 강초현(한화 갤러리아)이 2000년 시드니대회때 은메달을 따냈던 종목이다. 그외에도 서선화, 김정미, 조은영 등 세계 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속속 나타났지만 아테네올림픽 이후 국제대회 우승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침체기에 빠져있다. 그래서 김찬미에게 거는 사격계의 기대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

만 17세. 1m58㎝, 43㎏의 다소 갸날픈 체격을 지닌 기대주 김찬미는 광주 상일중학교 2학년때 사격에 입문한 늦깎이. 하지만 입문 4년만에 2007 아시아선수권대회및 2008년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공기소총에서 1차 396점, 2차 399점, 3차 397점을 쏴 단독 1위를 차지했으며 올 6개 대회 성적 합계에서 평균 396.83을 기록해 실업계 선배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로 대표에 뽑히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아직 국제대회 경험이 짧지만 집중력과 침착함이 강점이다. 특히 사대에 서면 가장 늦게 까지 사격을 할 정도로 자신을 다스리는 침착함이 뛰어나 베이징 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이번 아시아선수권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김찬미는 아시아선수권 본선 398점으로 공동 3위였지만 108점 만점의 결선에서 103.1점을 추가, 2위가 됐다. 내로라 하는 스타들도 결선에 오르면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흔들리기 쉽지만 김찬미는 다르다. 떠는 법이 없다. 도리어 코치들이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나무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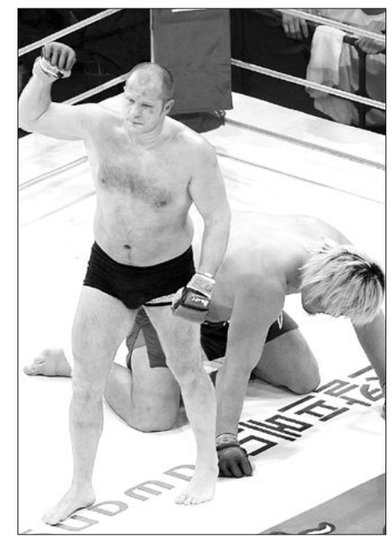
훈련을 많이 하기 위해 대학보다 실업팀인 기업은행을 택할 정도로 목표의식이 강한 김찬미의 꿈은 올림픽 금메달외에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게임이 끝나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태릉선수촌과 스카우트 된 기업은행에서 가벼운 훈련을 통해 체력을 보완하고 마음을 다지고 있다.

김찬미는 "최근 한국사격이 침체에 빠졌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 한국사격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싶다"며 " 자신감과 기술적 보완을 통해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홍만, 표도르에 TKO 패

"다시 한번 맞붙고 싶다"



최홍만이 구랍 31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표도르와 경기에서 암바로 1라운드 TKO로 진 뒤 고개를 떨구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사 여부 불투명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7)이 자신에게 TKO 패를 안긴 표도르 에멜리아넨코(31·러시아)와 재대결을 강하게 희망했다. 그러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홍만은 구랍 31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표도르와 경기에서 암바(팔 꺾기 기술)로 1라운드 TKO로 진 뒤 인터뷰에서 "표도르와 다시 한번 맞붙고 싶다. 이번 경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준비를 잘하고 방어 연습을 더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입식 타격 위주로 훈련을 해 온 최홍만으로서는 이번 경기가 그라운드 기술을 허용하는 종합격투기(MMA) 룰로 치러진 만큼 더 준비를 해서 재대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최홍만은 1라운드 초반 표도르에게 기습적인 암바로 진 뒤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링에서 잃어나지 않는 등 진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둘의 재대결이 최소 2년 이내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홍만과 표도르의 소속 단체와 활동 무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 표도르가 2006년까지 자신이 활동했던 프라이드가 K-1에 선수 수급 요청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가능했던 것이었다. 프라이드는 지난 해 미국 최대 격투기 단체인 UFC에 흡수되면서 향후 일본에서 격투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밀지마! 1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부산 KTF-원주 동부 경기에서 원주 김주성(오른쪽)과 부산 미첼이 리바운드를 다투었으나 빼앗기고 있다. KTF가 84-57로 이겼다 /연합뉴스

삼성화재 선두 질주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새해 첫날 대한항공 점보스를 꺾고 선두를 지켰다.

삼성화재는 1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7-2008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의 안젤코 추크(28득점)의 활약으로 보비(23득점)가 분전한 대한항공을 세트스코어 3-1(25-23 25-23 21-25 25-19)로 눌렀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이틀 전 현대캐피탈에 완패한 충격에서 벗어나 9승1패로 1위를 단단히 지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 '세단뛰기' 김덕현 영입

양궁·육상·보디빌딩 우수선수 9명 확보

광주시는 1일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시 대표로 출전할 우수 선수 9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은 종목 별로 육상 5명, 양궁 1명, 보디빌딩 3명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김덕현 선수(육상)는 주 종목인 세단뛰기에서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3위와 200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1위에 입상하는 등 세계 대회 메달이 기대되는 유망주다.

이특영 선수(양궁)도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과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궁의 신예 기대주. 그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6위를 기록, 태극 마크를 달게될 최종 3인에 들기 위해 선수촌에서 맹훈련중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 선수들이 입단함으로써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요삼 뇌사 판정 절차 빠르면 오늘부터 시작

최요삼(34·숭민체육관)의 뇌사 판정 절차가 빠르면 2일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빠르면 2일 뇌사 판정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며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10시간 가량 걸리게 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애초 8일 이후로 예고됐던 뇌사 판정 절차 개시가 이처럼 앞당겨지게 된 것은 장기 손상을 우려한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다.

뇌사 판정을 받게 되면 최요삼의 평소 뜻을 살려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건 미리 정해둔 일이었다.

가족과 병원 측은 순천향병원이 구랍 29일까지 투여한 신경안정제와 혈압안정제 약물이 모두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대로 빠르면 2일 오전부터 뇌사 판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스포츠중계

2일(수)

▲07/08 V리그 여자부〈도로공사 : 현대건설〉(16 : 30·KBS N SPORTS)남자부〈LIG : 한국전력〉(19 : 00·KBS N SPORTS)

▲07/08 여자프로농구〈삼성생명 : 신세계〉(16 : 50·SBS 스포츠)

▲07/08 프로농구〈삼성 : 모비스〉(18 : 50·SBS 스포츠)

▲07/08 프로농구〈전자랜드 : KT&G〉(18 : 50·Xports)

3일(목)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리버플 : 위건〉(05 : 00·MBC ESPN)